

뉴욕,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급증

올해 3월 뉴욕주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시장이 열풍으로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금요일, 뉴욕 스테이지 게임 위원회는 2023년 3월 5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뉴욕주에서 9개의 온라인 스포츠북 앱과 선호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지역 비터들이 4억 1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2022년 1월 8일에 9개의 디지털 스포츠 서적을 통해 운영되는 규제 대상 온라인 스포츠 베팅 부문을 출시했습니다. 케이시 호철 주지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베팅을 받은 첫해에 주정부에 7억 달러 이상의 세수와 라이선스 수수료로 2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시장을 규제하는 뉴욕주 게임 위원회의 최근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월 5일로 끝나는 주에 운영자들은 4억 1,080만 달러의 온라인 베팅 핸들을 창출했습니다. [파워볼사이트](#) 이는 뉴욕 시민들이 9개의 북메이커를 통해 약 3억 5,380만 달러를 베팅한 전주 실적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NYSGC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주 총 게임 매출은 2,580만 달러로 전주 2,840만 달러에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베팅 사업자의 보유율이 2월 25일 주 8%보다 낮은 6.3%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은 수익에 51%의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온라인 베팅 핸들에 대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간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카지노사이트](#) 현지에 본사를 둔 FanDual이 전체 베팅 핸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3월 5일 한 주 동안 1억 6,930만 달러의 플랫폼에서 주간 베팅 거래량을 보고했으며, 이는 세전 수익이 88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2위는 주간 베팅 활동에서 1억 3,740만 달러를 획득하면서 드래프트킹스가 다시 예약했습니다. 1,04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판듀엘의 집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시저스 스포츠북은 한 주 동안 총 게임 매출 5,580만 달러, 거의 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온라인 베팅 부문에서 다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월 초, NYSGC는 회의를 열고 주 내 스포츠 베팅 광고에 관한 규칙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파워볼사이트](#) 새로운 규칙은 대학과 대학 캠퍼스에 대한 스포츠 베팅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우려 속에서 스포츠 베팅 광고, 마케팅 및 홍보를 규제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민주당의 루이스 R. 세폴베다와 르로이 심리 의원은 상원 법안 S1550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내 모든 도박 및 스포츠 베팅 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슬롯사이트](#) 또한 모든 광고에는 뉴욕 문제 도박 핫라인 번호 1-877-8-HOPENY가 있어야 합니다.